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종 승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막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금속공예의 회화적 표현연구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김 희 영

사막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금속공예의 회화적 표현연구

김 종 승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김 희 영

인 준 서

김희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신혜경 (인)

심사위원 김종승 (인)

심사위원 백성희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또다시 진정성 없는 얇은 관계를 찾아 헤맨다. 외로움과 공허함의 연속에서 느껴지는 무력감과 허탈감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자기방어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모습은 현대사회를 점차 고독한 사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왔다. 이렇게 변화된 사회는 소통의 단절로 이어져 고립된 인간관계를 만들었고 서로의 내면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방어벽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었다. 마치 본체를 숨기고 보호하기 위한 선인장의 가시들처럼 말이다.

본 논문의 작품들은 위와 같은 현대사회의 이미지를 사막이 주는 황량하고 고독한 이미지와 대조시켜 사막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 생명체들의 모습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비추어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에 맞게 진화된 수많은 색과 형태를 가진 선인장들의 모습과 독특한 외관을 가진 낙타를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이렇게 환경에 맞춰 진화된 사막의 생명체들을 다양한 회화적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의 제작 과정에 회화적인 요소를 추가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입체적인 조형물과 평면적인 드로잉 사이의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반 입체의 조형물들을 넣어 작품을 구성하였다.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금속 표면에 염료 착색 대신 열 착색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사용하여 각각의 소재와 특성을 살리되 작품의 색감과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 방법을 모색하였다.

공예에서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조형성 위주의 작품에서 평면성과 회화

적 표현방식에 중점을 두어 표면 착색으로 음영을 주거나 색을 넣어 입체감을 부여해 주고 반 입체의 조형물을 추가하여 평면작품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업 방식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군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인간소외 현상과 더불어 현대인들의 여러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외로움과 고독을 회화적으로 나타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쓰이는 회화적 표현과 입체적인 조형방식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성 있는 조화로움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융합된 작업 방식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 간의 고립된 관계성에 대한 문제점을 변화된 사회상에 맞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 개인 중심 사회로 변화해버린 사회환경의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되 각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여 현대사회의 고독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자의 작품은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갈 것인가의 고찰과 함께 연구자가 나아가려는 공예에 대한 방향 또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기존에 있던 조형성에 기초를 둔 공예의 변화와 더불어 작품의 장르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각각의 장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이용하여 오브제로서의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하고 싶었다. 나아가 현대 생활에 맞는 조형물의 변화로 실제 쓰임으로서의 조형물보다 시각적 만족감을 주는 벽면 오브제의 조형물로 변화시켜 공예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2
II. 본론	4
1. 사막의 이미지로 바라본 현대사회의 모습	4
2. 금속공예의 회화적 표현	5
1) 공예의 일반적 개념의 변화	5
2) 공예와 회화적 방식의 도입	6
3) 조형 방식에 따른 작품 사례연구	6
① 회화적 조형 작품	7
② 입체적 조형 작품	8
③ 복합적 조형 작품	9
3. 작품 전개 및 분석	12
1) 작품의 제작 의도	12
2) 선행연구	12
3) 작품의 제작 과정	17
① 선인장 시리즈	20

(1) 아크릴 착색 표현	20
(2) 블랙-C, 황화칼륨 착색 표현	23
(3) 열 착색 표현	25
(4) 반 입체형태의 표현	26
② 사막 시리즈	34
4) 작품 분석	41
① 선인장 시리즈	41
(1) 아크릴 착색 표현	41
(2) 블랙-C, 황화칼륨 착색 표현	44
(3) 열 착색표현	47
(4) 반 입체형태의 표현	49
② 사막 시리즈	52
III. 결론	57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 【표1】 열 착색기법(적동)으로 나타낸 색의 변화 13
- 【표2】 블랙-C 착색기법(적동, 황동)으로 나타낸 색의 변화 14
- 【표3】 황화칼륨 착색기법(적동, 황동)으로 나타낸 색의 변화 .. 14

그 립 목 차

【그림1】 샤론 바이저(Sharon Weiser), 〈Desert Garden〉 #18, 캔버스에 유채	7
【그림2】 샤론 바이저(Sharon Weiser), 〈Desert Glitter〉 , 캔버스에 유채	7
【그림3】 하비에르 마리스칼, 〈선인장 조각(Cactus Sculpture)〉 , 스테인리스강, 2003	8
【그림4】 studio: NÓS, 〈움직이는 모래언덕(moving dunes)〉 , 몬트리올 미술관	10
【그림5】 착색기법으로 나타낸 선과 면	15
【그림6】 착색된 금속 위에 핸드피스바를 사용하여 나타낸 선과 면	16
【그림7】 핸드피스바 : 황동 솔, 수세미, 광바, 다이아바	16
【그림8】 선인장 스케치	17
【그림9】 선인장 스케치(트레싱지)	18
【그림10】 160*160*20(mm)의 금속판	19
【그림11】 금속판 뒷면에 들어가는 나무 틀	19
【그림12】 먹지를 이용한 스케치	19
【그림13】 먹지로 그린 선위에 착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19
【그림14】 광섬유로 만든 가시	20
【그림15】 동선으로 만든 가시	20

【그림16】	아크릴물감 착색 과정	21
【그림17】	스텐실 붓과 아크릴 붓	22
【그림18】	투명 금속코팅제와 광택제(wax)	22
【그림19】	금속판 뒷면에 에폭시로 가시 고정하기	22
【그림20】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뒤판	22
【그림21】	금속판 위에 스케치	23
【그림22】	블랙-C로 그린 선인장의 형태라인	23
【그림23】	착색 용액으로 양감표현	24
【그림24】	다이아바와 광바를 이용한 디테일한 표현	24
【그림25】	작품 뒷면에 LED 조명 설치	24
【그림26】	광섬유를 통한 빛의 발산	24
【그림27】	열 착색표현 작업 과정	25
【그림28】	선인장 페인팅	26
【그림29】	선인장꽃 작업 과정	27
【그림30】	선인장꽃 수술 만들기	27
【그림31】	다이포밍 기법으로 만든 선인장	28
【그림32】	선인장 가시	28
【그림33】	선인장 가시 부착	29
【그림34】	선인장 스케치	30
【그림35】	선인장 스케치 채색	30
【그림36】	다이포밍 기법을 이용한 선인장 잎 만들기	31
【그림37】	반쪽짜리 조형물을 용접하여 결합	31
【그림38】	각각의 조형물들을 하나의 형태로 결합	32

【그림39】	조형물의 뒷면에 볼트를 용접하여 지지대 만들기	32
【그림40】	완성된 선인장 형태의 조형물에 열 착색하기	33
【그림41】	선인장 조형물과 선인장 아크릴화 위에 가시 부착	33
【그림42】	낙타 모형	34
【그림43】	에폭시로 오아시스 만들기	35
【그림44】	사막 이미지 스케치	35
【그림45】	사막의 결 모양대로 부식시킨 후 착색	36
【그림46】	오아시스 부분 컷팅과 배경에 젯소 바르기	36
【그림47】	오아시스 부착	37
【그림48】	뒤판에 led 설치	37
【그림49】	블랙-C와 황화칼륨으로 착색 및 묘사	38
【그림50】	글루건으로 틀 만들어 에폭시 붓기	39
【그림51】	뒤판에 led 부착	39
【그림52】	알루미늄 뒤판	39
【그림53】	아크릴 페인팅	40
【그림54】	금속망으로 모래 결 표현	40
【그림55】	금속망 자르기	40
【그림56】	동선으로 바느질	40

작 품 목 차

【작품1】	〈Mini cactus series〉 , brass, acrylics	42
【작품2】	〈Mini cactus series〉 , copper, acrylics	43
【작품3】	〈Mini cactus series (light)〉 , brass	45
【작품4】	〈Mini cactus series (light)〉 , copper	46
【작품5】	〈Mini cactus series〉 , copper	48
【작품6】	〈Cactus flowers 1〉	50
【작품7】	〈Cactus flowers 2〉	50
【작품8】	〈Colorful cactus 1〉	51
【작품9】	〈Colorful cactus 2〉	51
【작품10】	〈홀로〉	52
【작품11】	〈잠시 멈춰 서서(night) 1〉	54
【작품12】	〈잠시 멈춰 서서(night) 2〉	54
【작품13】	〈잠시 멈춰 서서(day) 1〉	55
【작품14】	〈잠시 멈춰 서서(day) 2〉	55
【작품15】	〈Colorful desert 1〉	56
【작품16】	〈Colorful desert 2〉	56

I. 서 론

1. 연구 목적

현대사회는 도시의 발전과 함께 이전의 공동체 중심의 삶에서 개개인의 사생활이 더 중요시되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디지털 문화와 통신의 발전으로 서로 간의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으며 타인과 자신의 삶을 쉽게 공유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이전과는 다른 관계의 방식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게 되었고 소통이 확대된 사회로 진화된 듯하나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외로움과 고독에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다.¹⁾

위와 같이 현대인의 고독은 도시환경과 매체의 발전으로 변화된 사회 모습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다. 개인화의 모습이 두드러진 현대사회는 이제 ‘우리’라는 말보다 ‘혼자’라는 말에 중점을 둔 삶의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된 현대인의 모습을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견디며 진화한 사막의 생명체들의 모습과 연결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연구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막의 생명체들은 선인장과 낙타이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모습들을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연구자의 작업에서 어떻게 조형적으로 표현할 것인지 살펴 보았다.

1) 송은숙, 「소외와 고독의 시선으로 본 도시공간의 회화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p.5.

본 논문에서는 사막의 황량하고 쓸쓸한 모습과 삭막해진 현대사회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둘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토대로 현대사회의 고독과 단절된 관계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사막과 사막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점점 사람 간의 깊이 있는 감정의 교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무미건조한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막이라는 소재를 통해 사회 현실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고립된 인간관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융합적인 조형작업에 결부시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융합된 작업방식을 통해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추구하여 현대인의 고독을 해소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회화적 표현과 입체적 조형방식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다른 조형방식들을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 개성 있는 조화로우움을 작품에 녹여내고자 한다. 일반적인 조형성 위주의 공예작품에서 벗어나 대중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융합적인 공예작품을 보여 주어 보다 폭넓은 금속 조형예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공예작품을 현대사회의 주거환경에 맞게 벽면 오브제로의 형태로 변화시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본래 공예가 가지고 있던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그들에게 새로운 공예의 모습을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현대사회는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사회로의 변화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장과 익명성으로 개인의 개성과 다

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점도 있지만, 소통의 단절이라는 문제점도 수반한다. 편리한 디지털 매체 덕분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빠른 소통과 단절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관계’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을 사막과 사막의 생명체인 선인장과 낙타로 나타내고자 했으며 이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회화적인 방식과 금속 조형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금속의 착색기법에 관련한 학술 자료들과 논문, 국내외 서적을 토대로 하여 금속 고유의 색과 금속 착색기법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금속의 색상을 연구하였다. 열 착색, 블랙-C 착색, 황화칼륨 착색 등을 사용하여 농도와 온도별로 얻을 수 있는 색상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실험을 하였으며 그중 회화적 기법인 드로잉과 가장 잘 맞는 착색 방법을 찾아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듯 금속판 위에도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금속착색 기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색상들은 아크릴과 같은 염료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반 입체형태의 조형물들을 금속판 위에 결합하여 평면조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크릴, 에폭시, 블랙-C(Black-C), 황화칼륨(potassium), 광섬유, 조명 등 여러 방식과 기법을 사용하여 회화적 표현과 입체조형방식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들을 살리면서 두 가지 방식 사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들과 어울리는 기법을 찾아 조화롭고 신선한 작품을 만들어 생동감 있는 사막의 생명체의 모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대사회의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사막의 이미지로 바라본 현대사회의 모습

본 논문에서는 사막의 건조하고 메마른 환경이 주는 황량함과 고독함을 도시화의 발달로 인해 개인화되고 삭막해진 현대사회의 모습과 대조시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막의 모습은 물 한 방울 없는 건조하고 척박한 모래사막의 모습이다. 식물 하나 보이지 않는 끝없이 펼쳐진 모래언덕과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은 사막을 더 메마르고 건조하게 하며 일교차가 심해 밤이 되면 극한의 추위가 몰려와 생명체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한다.²⁾ 이러한 특수한 환경 때문에 사막을 생명체가 살지 않는 죽어있는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인장과 낙타가 있다. 이들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살아왔다.³⁾

본 연구자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끈끌하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화의 발전으로 공동체 중심의 문화에서 개인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버린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그에 맞춰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형태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지만 반

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23124&cid=47316&categoryId=47316>

3) 이훈복, 「사막에서 사는 동·식물」,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6권, 2018, pp.67-68.

대로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물론 디지털 매체의 발전으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이전과 같은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진실한 소통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 갔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단절은 사람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는 곧 현대사회의 개인화를 가속화 시켰다. 이렇게 개인화된 사회에서 내재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자기방어적인 모습은 마치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선인장의 가치와 닮아있었다. 이처럼 변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어 외로움과 고독에 익숙해져 갔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모습과 현대인의 고독을 사막의 환경에 대입하여 보여줌으로써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현대인의 고독과 우울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본 연구자의 작업의 방식과 연구자가 추구하는 공예의 방향성과 결부시켜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금속공예의 회화적 표현

1) 공예의 일반적 개념의 변화

공예란 실용적인 물건에 장식적인 가치를 부가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고 하는 미술⁴⁾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공예에서의 기능은 재료와 기술에 상관없이 수 천 년 동안 공예품의 보편적 요소로 존재해왔다.⁵⁾ 하지만 이러한 공예의 모습도 현대에 들어서는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변화된 조형예술의 모습은 회화, 디자인, 공예 할 것 없이 모든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3547&cid=40942&categoryId=33061>

5) 백한승, 「21세기 현대미술에서 공예의 기능성과 정체성 연구 : 하워드 리사티(Howard Risatti)의 '비평적'공예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ii.

각각의 장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공예의 모습을 그려나가고자 한다.

2) 공예와 회화적 방식의 도입

본 연구자는 금속공예에 다양한 회화적 표현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장르의 경계 없이 자유롭게 소통 가능한 작업 방식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공예는 입체적인 조형성 위주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회화는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형상을 그려내는 평면적인 조형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로 반대의 특성이 있는 공예와 회화는 시각적,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공통된 목적을 가진다. 공예는 어떠한 형태나 형상을 만들어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지만 반면에 회화는 풍부한 색채나 선과 면의 다양한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시각적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연구자는 이러한 회화의 시각적 표현방식을 조형작업에 함께 사용하여 평면조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조형작업에 다양한 색채와 회화적 표현방식을 넣음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회화적 표현기법인 드로잉을 금속 착색기법과 연결해 금속판 위에 그림을 그리고 실용성과 입체적 조형성에 중점을 둔 공예의 모습에서 회화 작품과 같은 시각적 만족감에 중점을 둔 벽면 오브제의 형태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장르의 다각화로 변화하는 수많은 조형예술의 형태는 현대공예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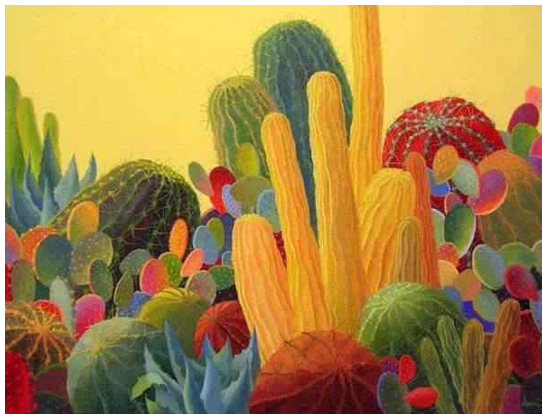
3) 조형 방식에 따른 작품사례연구

본 연구자는 회화적 요소와 입체조형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작품에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회화적 작품, 입체적 조형 작품, 복합적 조형 작품으로 나누어 작품사례를 찾아보았다.

① 회화적 조형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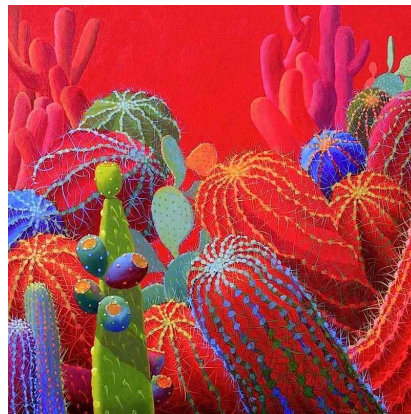
샤론 바이저(Sharon Weiser)는 다양한 종류의 선인장을 다채로운 색상을 통해 표현하였다. 다양한 형태와 독특한 색채를 가진 선인장 무리를 그려낸 그녀의 작품들은 뾰뾰하고 조밀하게 정리된 모습을 특징으로 하며, 때로는 선인장의 실제 크기를 변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작품 속에 표현된 선인장들의 모습은 마치 도심 속 군중의 일원처럼 보이면서 시선을 더욱 집중시킨다.⁶⁾

작품에서 나타나는 선인장의 다양한 색의 변화는 이들을 더욱 역동적이게 보여주고 제각기 다른 모양과 색을 가진 선인장들을 반복적으로 배열한 모습은 혼잡스러우면서도 조화롭게 보이기도 한다.⁷⁾ 다양한 선의 표현과 색상 표현은 화면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샤론 바이저의 작품들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회화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특징들을 매우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샤론 바이저(Sharon Weiser)
〈Desert Garden〉, #18, 캔버스에 유채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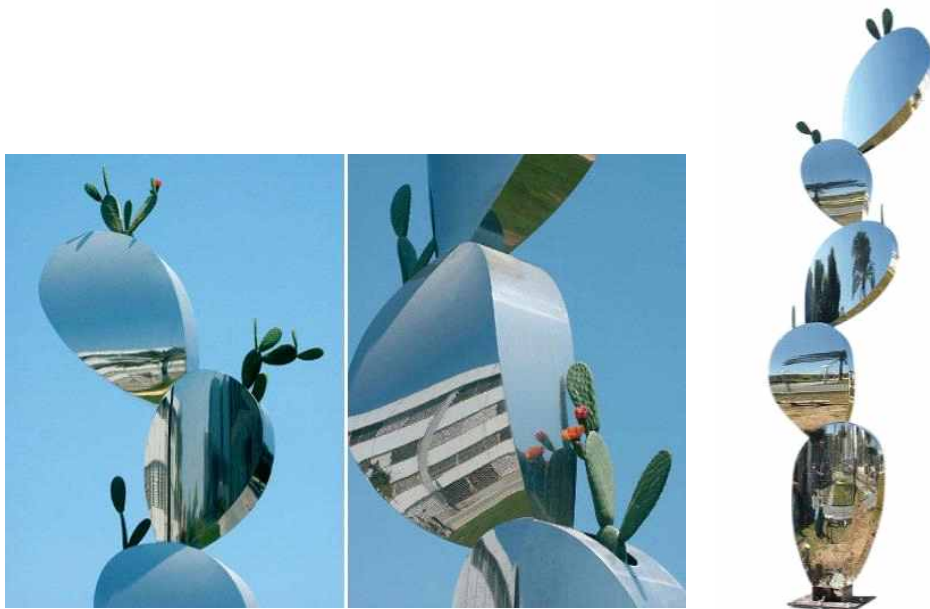
샤론 바이저(Sharon Weiser)
〈Desert Glitter〉, 캔버스에 유채

6) 댄 토레,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식물 선인장』, 니케북스, 2019, p.113.

7) 댄 토레,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식물 선인장』, 니케북스, 2019, p.113참조.

② 입체적 조형 작품

하비에르 마리스칼은 거대한 프리클리페어선인장을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상으로 만들었다.⁸⁾ 6미터가 넘는 이 조형물에는 실제 선인장이 자라고 있으며 이 작품은 인공물과 자연물을 대비시키는 동시에 작품의 겉면에 조각상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이 반사되게 만들어 주변 환경을 비추게 하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하비에르 마리스칼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소통하며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실재를 벗어난 위트 있는 야외 조형물을 만들어 대화와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⁹⁾



【그림 3】

하비에르 마리스칼

〈선인장 조각(Cactus Sculpture)〉, 스테인리스강, 2003

8) 댄 토레,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식물 선인장』, 니케북스, 2019년, pp.115-116.

9) <https://blogview.hyundaicardcapital.com/340>

③ 복합적 조형 작품

몬트리올의 거리에 설치된 이 작품은 몬트리올 미술관으로부터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설치물을 의뢰받아 캐나다 건축 회사인 NÓS가 만들었다. 이 작품은 모래언덕의 이미지를 입체주의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평면의 바닥에 선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마치 바닥이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주었다. 그리고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형물을 곡선의 커브에 맞춰 설치하고 조형물의 주위와 바닥에 그려진 선적인 요소들의 사이에 음영을 주어 모래언덕을 더욱 현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조형물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쇠 구슬처럼 만들어 모래 바닥이 꺼지는 듯한 착시효과를 주었다.¹⁰⁾

10) <https://brunch.co.kr/@ideabulb/362>



【그림 4】

studio: NÓS

〈움직이는 모래언덕(moving dunes)〉, 몬트리올 미술관

(designers: charles laurence proulx, gil hardy, negar adibpour, jean-benoit trudelle)

(photography: olivier bousquet, eloa defly, raphaël thibodeau, alex lesage, and charleslaurence proulx)¹¹⁾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작품의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지향하는 작업의 방향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샤론 바이저의 작품들은 다채로운 색과 다양한 선의 활용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 연구자가 회화적 표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각적 요소들이 잘 나타나 있다.

두 번째로 하비에르 마리스칼의 선인장 조각은 작품의 겉면에 주변 환경들을 비추게 만들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대화와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 역시 현대사회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황량한 사막의 이미지에 투영시켜 나타내어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소통을 통한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을 바라며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가 지향하는 작업의 방향과 비슷한 목적이 있다.

세 번째로 건축회사 NÓS의 움직이는 모래언덕은 입체조형물과 회화적 표현요소인 선을 중점으로 사용한 페인팅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시각적인 재미를 주고 입체조형물을 통한 차량통제로 기능적인 면까지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조형방식은 연구자가 나아가려고 하는 작업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사막의 이미지를 통해 금속공예에 회화적 요소를 어떻게 녹여내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11) <https://www.designboom.com/art/nos-moving-dunes-mirage-montreal-11-03-2020/>

3. 작품전개 및 분석

1) 작품의 제작 의도

본 연구자는 사막이 가지고 있는 메마르고 황량한 이미지를 현대사회의 고독에 비유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고독은 현대인들에게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점점 개인화된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서 소통의 단절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인화된 삶은 다양성과 개개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지만 때로는 관계에 대한 부재로 소외감과 고독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자는 사막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러한 사회 현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금속 조형기법과 회화적 표현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작업 방식으로 장르의 융합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연구자의 작업 방식이 단절된 사람들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자는 작품을 들어가기에 앞서 금속 조형기법과 회화적 표현방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았다.

첫 번째로는 염료 채색 외에 금속 착색 기법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금속의 색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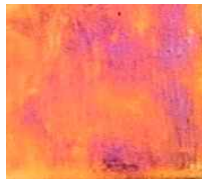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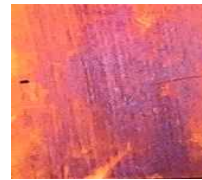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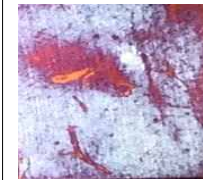




【표 1】에서는 열 착색기법을 온도와 시간별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황동, 적동 중에 적동이 가장 열에 대한 색상의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황동이 적동보다 열에 대한 색상 변화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실험대상을 적동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표 2】는 블랙-C 착색기법을 적동과 황동에 나누어 실험해 보았으며









블랙-C의 농도에 따라 나타나는 색상을 관찰하였다.

【표 3】에서는 황화칼륨 착색으로 황화칼륨의 농도에 따른 색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표 1】 열 착색기법(적동)으로 나타낸 색의 변화

시간	46초	55초	1분 5초	1분 20초
시간별 색 변화 (630℃, 적동)				
결과	630℃의 동일한 온도를 주었을 때 열을 가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노란색, 주황색에 가까운 색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열을 가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진분홍색, 보라색, 남 보라색 순으로 색의 변화가 일어났다.			
온도	350℃	370℃	400℃	430℃
온도별 색 변화 (적동)				
결과	온도가 낮을수록 노란색, 주황색에 가까운 색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진분홍색, 보라색, 남 보라색 순으로 색의 변화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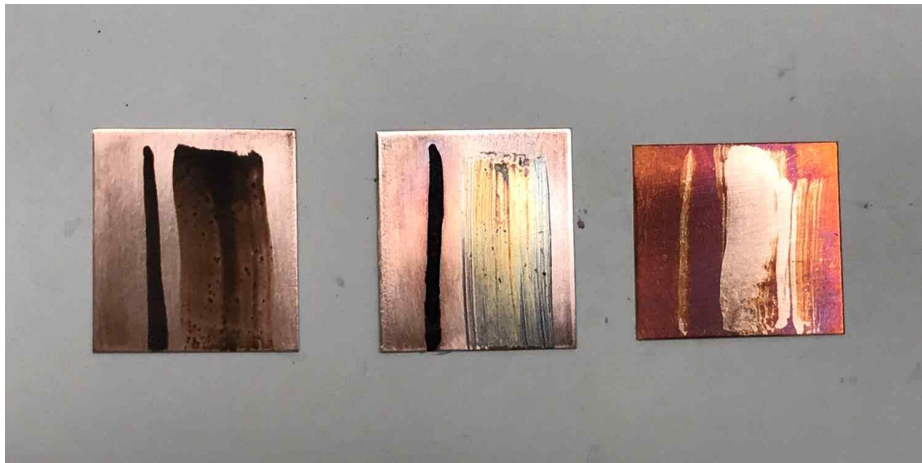
【표 2】 블랙-C 착색기법(적동, 황동)으로 나타낸 색의 변화

농도	25%	50%	75%	100%(원액)
농도별 색 변화 (적동)				
농도	25%	50%	75%	100%(원액)
농도별 색 변화 (황동)				
결과	블랙-C의 농도가 열을수록 열은 갈색빛이 나오고 농도가 진해질수록 진한 흑갈색과 푸른 색상이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적동에는 붉은 갈색, 황동에는 좀 더 노란색이 섞인 갈색이 나왔다.			

【표 3】 황화칼륨 착색기법(적동, 황동)으로 나타낸 색의 변화

농도	1%미만	5%미만	15%미만	25%미만
농도별 색 변화 (적동)				
농도별 색 변화 (황동)				
결과	적동에는 색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황동에서는 효과가 미비하였다. 적동에 착색했을 때 농도가 열을수록 붉은색과 노란색이 많이 나타났고 농도가 짙어질수록 푸른빛과 어두운 흑갈색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일정한 색이 나오기보다 여러 가지 색상들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회화적 기법인 드로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착색기법을 찾기 위해 붓으로 선과 면을 그려보고 그중 가장 색이 일정하게 나오는 착색 기법을 찾아보았다. 그 이유는 선을 긋거나 면을 채웠을 때 색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으면 정확한 형태 표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5】

착색기법으로 나타난 선과 면

【그림 5】는 왼쪽부터 블랙-C, 황화칼륨, 열 착색을 이용하여 선과 면을 표현한 것이다. 블랙-C가 황화칼륨보다 색이 일정하게 나오며 면을 칠했을 때 수채물감과 가장 유사한 패턴이 나왔다. 블랙-C는 그라데이션이 가능하고 중첩하여 색을 칠할 수 있으며 황화칼륨과 달리 색의 벗겨짐이나 번짐이 없었다. 황화칼륨은 농도가 짙으면 색이 옆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면을 칠했을 때 색이 일정하지 않고 여러 번 덧칠하였을 때 벗겨짐 현상이 나타난다. 열 착색은 질산에 쉽게 벗겨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선과 면을 그려보았다.

세 번째로는 착색된 금속 위에 광바, 황동 솔, 다이아바, 수세미 등을 이용

하여 표면을 긁어내어 선과 면을 나타내보았다. 착색기법으로 선과 면을 표현하는 것이 드로잉을 할 때 연필을 사용하여 그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한다면 착색된 표면을 긁어내어 표현하는 방식은 드로잉에서 지우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은 【그림 7】의 핸드피스 바를 이용해 선과 면을 표현한 것이며 왼쪽부터 황동 솔, 수세미, 광바, 다이아바 순서대로 사용하였다.



【그림 6】

착색된 금속 위에 핸드피스바를 사용하여 나타낸 선과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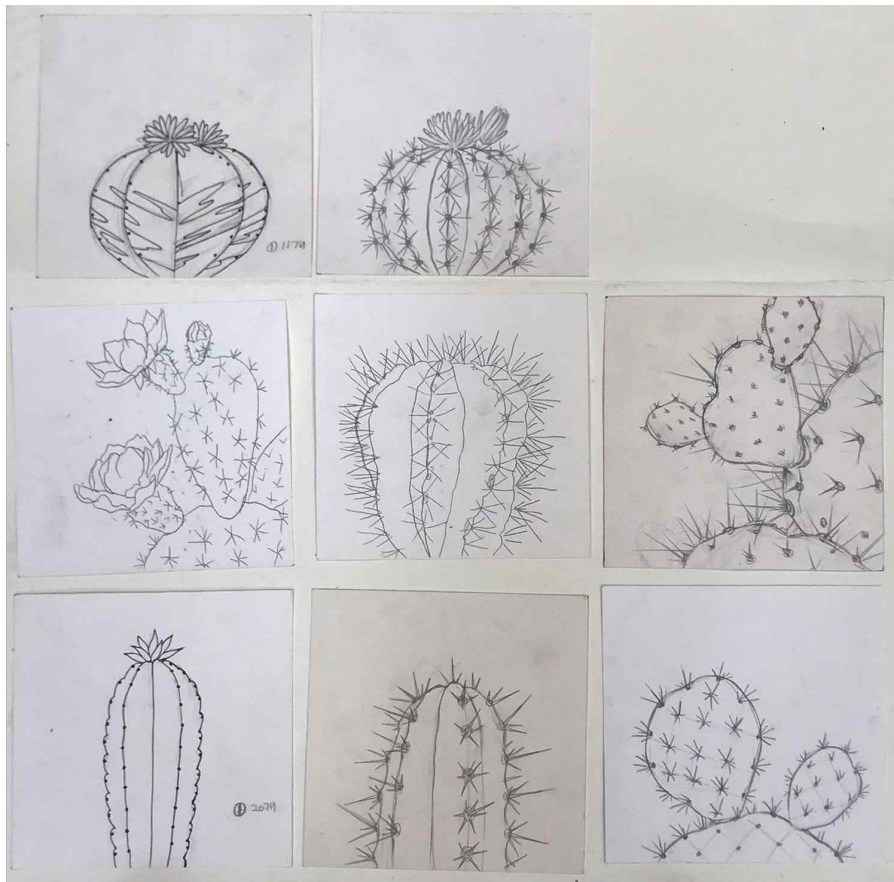
【그림 7】

핸드피스바 : 황동 솔, 수세미, 광바, 다이아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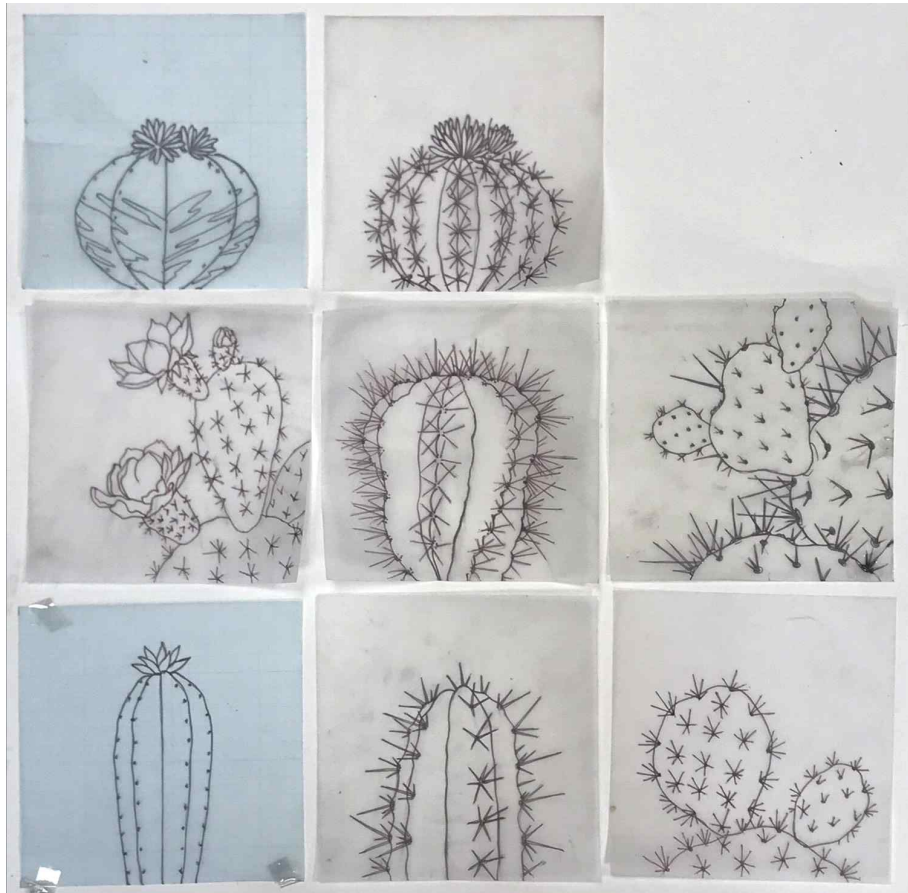
3) 작품의 제작 과정

본 논문에서는 같은 형태의 스케치를 각각 다른 착색 기법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래서 공통되는 작품의 제작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작품을 착색 기법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그림 8】과 같이 각기 다른 모양의 선인장을 스케치하고 【그림 9】처럼 원본 스케치를 트레싱지에 옮겨 그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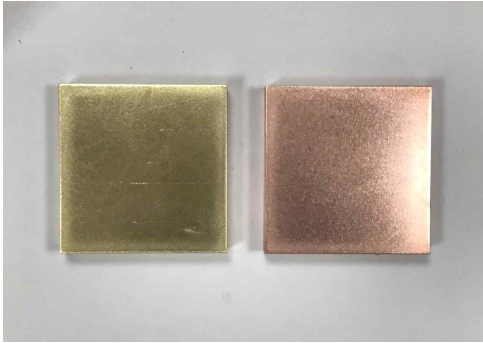


【그림 8】 선인장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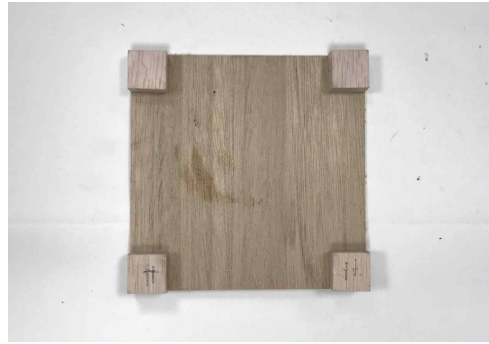
【그림 9】 선인장 스케치(트레싱지)

두 번째로는 작품의 밑바탕이 될 동판을 캔버스 액자처럼 만들어 벽면에 설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림 10】 처럼 금속판을 각 접기 하여 160*160*20(mm)의 크기로 만들어주고 금속판 뒷면에 【그림 11】 과 같은 나무판을 끼워준다. 이 나무판은 금속판의 각 모서리를 벌어지지 않게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동판의 표면에 착색이 잘 먹히게 하도록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샌딩(sanding) 작업을 해준다. 샌딩 작업을 할 때 마지막에 수세미를 사용해 주면 사포 자국 없이 균일한 표면을 만들 수 있다.



【그림 10】

160*160*20(mm)의 금속판



【그림 11】

금속판 뒷면에 들어가는 나무 틀

세 번째로는 표면처리가 완료된 금속판 위에 먹지와 트레이싱지를 이용하여 【그림 12】와 같이 스케치를 옮겨 그려준다. 여기서 먹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케치를 그대로 옮겨 그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림 13】처럼 먹지의 흑연 가루로 인해 금속판 위에 여러 번 착색을 진행해도 스케치가 남아있어 정확한 형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 착색 기법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는 표면 열 착색 시 스케치가 사라지므로 착색을 먼저 끝낸 후 스케치를 들어가야 한다.



【그림 12】

먹지를 이용한 스케치



【그림 13】

먹지로 그린 선위에 착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네 번째로는 선인장에 있는 가시를 만드는 작업이다. 금속판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라 양감을 넣어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에 부족할 수 있어 선인장 가시를 만들어 금속판 위에 부착하려고 하였다. 가시를 만들 때 【그림 14, 15】 처럼 선인장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만들었으며 동선, 광섬유, 리벳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14】 광섬유로 만든 가시



【그림 15】 동선으로 만든 가시

① 선인장 시리즈

(1) 아크릴 착색표현

본 연구자는 금속 착색 기법으로 여러 색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착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색상들을 아크릴 염료로 대신하여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작품 제작 순서는 【그림 16】 과 같다. 먼저 금속 표면을 사포와 수세미를 사용하여 고르게 만들어주고 먹지를 이용하여 금속판 위에 스케치를 그려준다. 스케치가 끝난 후 아크릴물감이 올라갈 부분에 젯소를 얇게 바르고 그 위에 옐로 오키(yellow ochre)¹²⁾물감을 발라주어 물감의 점착력을 높여 주었다. 이렇게 밑 바탕색을 칠한 후 아크릴물감을 사용하여 선인장의 양감

12) 옐로 오키(yellow ochre)는 황색을 띠는 밝은 갈색을 말하며 오키는 철산화물이 함유된 황토색을 말한다.

(http://dict.aik.or.kr/main/view.vm?word_id=22244&page=1&q=%EC%98%90%EB%A1%9C%EC%98%A4%EC%BB%A4&index=&depart_id=1&is_first=1)

과 질감을 표현해 주었다.



【그림 16】 아크릴물감 착색 과정

아크릴 염료는 다른 물감과는 다르게 빠르게 건조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주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양감을 주기 위해 【그림 17】의 스텐실 붓을 함께 사용하여 그려주었다. 스텐실 붓을 사용하면 붓 자국이 많이 남지 않게 색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으며 선인장의 굴곡진 면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7】

스텐실 붓과 아크릴 붓



【그림 18】

투명 금속코팅제와 광택제(wax)

선인장의 채색이 끝난 후 에폭시를 이용하여 나무판과 금속판을 접착시킨다. 그다음에 선인장의 가시가 들어갈 부분을 드릴링하여 가시들을 끼워준다. 그리고 【그림 19】와 같이 가시들이 떨어지지 않게 에폭시로 고정된 후에 금속 표면에 【그림 18】의 금속 광택제를 뿌려 표면을 코팅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20】처럼 뒤판을 만들어 작품의 내부를 깔끔하게 가려주었다. 뒤판은 작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가벼운 금속인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그림 19】

금속판 뒷면에 에폭시로 가시 고정하기



【그림 20】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뒤판

(2) 블랙-C, 황화칼륨 착색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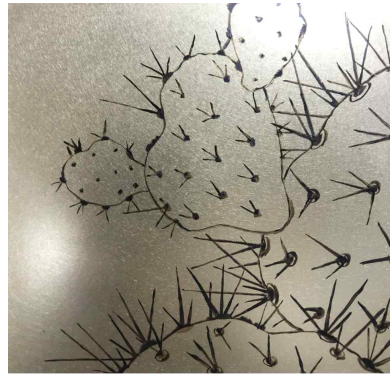
블랙-C와 황화칼륨 착색은 금속 표면의 상태가 착색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전처리가 중요하다. 황동에는 황화칼륨 착색 효과가 미비하여서 블랙-C를 주로 사용하였고 적동은 블랙-C와 황화칼륨 모두 사용이 가능하여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그림 21】 과 같이 금속판 위에 스케치가 끝나면 【그림 22】 처럼 블랙-C로 다시 정확한 형태의 라인을 그려주었다.



【그림 21】

금속판 위에 스케치



【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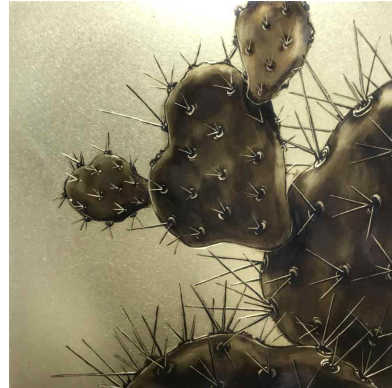
블랙-C로 그린 선인장의 형태라인

라인을 그리고 나서 면을 채워줄 때 물감을 사용할 때처럼 약품의 농도를 조절하여 붓으로 양감과 질감을 표현해 주었다. 【그림 23】 처럼 밑 색을 다 칠하고 나서 【그림 24】 와 같이 황동 솔과 수세미로 만들어진 핸드피스 바를 사용해 착색된 금속의 표면을 긁어내어 밝은 부분을 찾아주고 다이아 바와 광바를 사용하여 세밀한 묘사를 해주었다. 착색으로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wax가 첨가된 성분 중 구두약을 선택해 표면에 발라주고 공기의 접촉을 최소화해 변색을 막아주게 하였다.



【그림 23】

착색 용액으로 양감표현



【그림 24】

다이아바와 광바를 이용한 디테일한 표현

표면처리 후 드릴링을 하여 광섬유로 만든 가시를 부착해 주고 【그림 25】 처럼 작품 뒷면에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광섬유는 빛을 전파하는 유리섬유로 광섬유의 겉면을 사포로 긁어내어 빛이 끝에만 맺히지 않고 옆면으로도 퍼지게 만들어 선의 느낌을 강조시켰다. 【그림 26】



【그림 25】

작품 뒷면에 LED조명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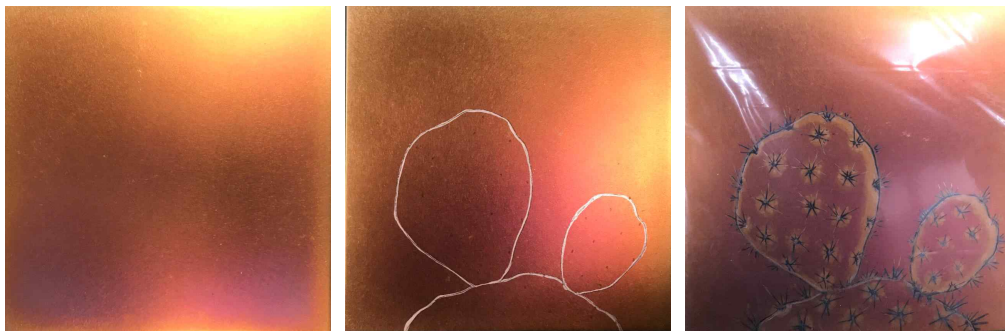
【그림 26】

광섬유를 통한 빛의 발산

(3) 열 착색표현

열 착색도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금속 표면 전처리가 중요하다. 열 착색을 할 때 표면 위에 기름기가 있으면 착색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으며 착색을 한 후에도 열 착색의 경우 표면에 기름기나 다른 용액들이 묻게 되면 색이 바로 변하기 때문에 작품 위에 금속 코팅제나 구두약 등의 표면처리가 불가하다. 열 착색을 진행할 때 직접 불을 쬐는 방식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색이 고르게 나타나게 하였으며 열로 인한 금속판의 뒤틀림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열 착색 시에 부분적으로 열을 더 가해서 자연스러운 색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렇게 착색된 표면 위에 묽은 산(pickle)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내었다. 산도 다른 착색 용액과 마찬가지로 농도 조절을 통해 선인장의 양감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어두운 부분과 외곽라인 정리는 블랙-C와 황화칼륨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27】

마지막으로 드릴링을 하여 가시를 부착하였으며 열 착색은 별다른 표면 코팅처리를 하지 않았다. 대신에 아크릴 액자를 제작하여 작품을 보관함으로써 금속 표면의 공기 마찰을 최대한 줄여 변색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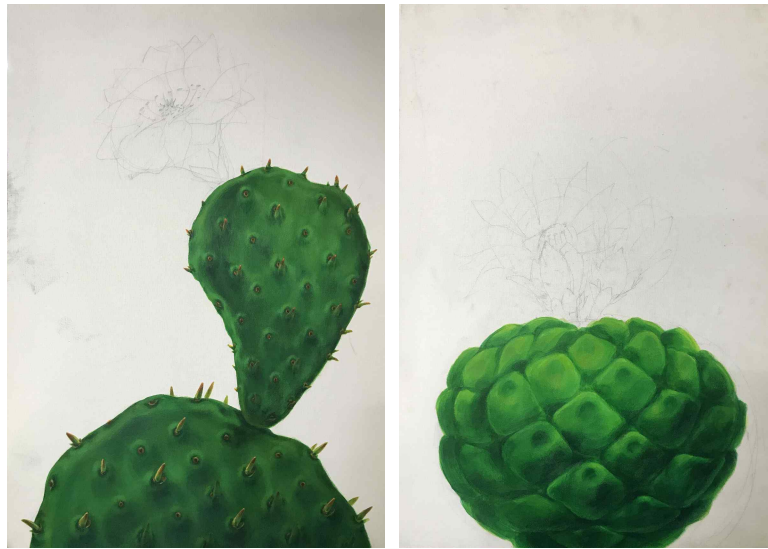
【그림 27】 열 착색표현 작업과정

(4) 반 입체형태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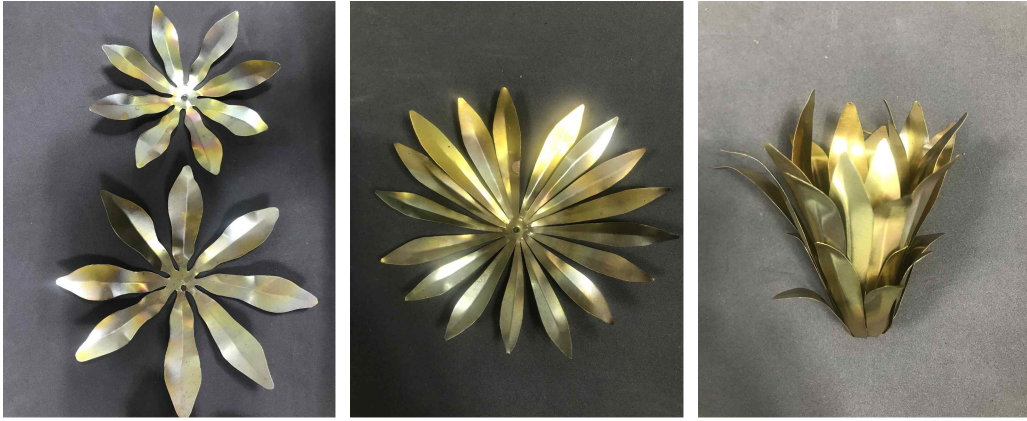
위에서 설명했던 작품들은 회화적 표현기법에 중점을 두고 금속 표면 위에 양감과 질감을 그려내어 입체감을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아크릴 그림 위에 반 입체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입체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작업과정은 <Cactus flowers 1, 2> 【작품 6, 7】 과 <Colorful cactus 1, 2> 【작품 8, 9】 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Cactus flowers 1, 2> 【작품 6, 7】 의 작업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그림 28】 과 같이 캔버스에 선인장 아크릴화를 그려주고 선인장 꽃이 들어갈 부분은 임의로 크기와 형태만 스케치해준다. 밑그림을 완성한 후 【그림 29】 와 같이 얇은 황동 판으로 꽃을 구성하는 조각들을 크기별로 만들어주고 그 위에 황화갈륨 착색을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들을 모아 겹겹이 쌓은 후 꽃의 심지와 수술이 들어갈 부분을 드릴링 해주었다.



【그림 28】 선인장 페인팅



【그림 29】 선인장 꽃 작업과정

두 번째로 꽃의 심지를 만들어준다. 꽃의 심지와 수술은 【그림 30】 과 같이 황동 선의 윗부분에 열을 가해 물방울 모양으로 녹여 그 형태를 표현 하였으며 만들어진 수술들은 리벳에 꽃아 용접하여 고정했다. 꽃의 심지 끝에 볼트를 댄하여 붙이고 【그림 29】의 조각들을 겹겹이 쌓아 중심부를 관통하여 꽃아준 후 너트로 조여 고정하였다. 완성된 꽃은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아크릴페인팅 위에 고정해주었다.



【그림 30】 선인장 꽃 수술 만들기

세 번째로는 【그림 31】 처럼 다이포밍(die forming) 기법을 이용하여 반입체형태의 선인장 금속모형을 만들어주고 【그림 32】 와 같이 선인장에 들어갈 가지부분을 만들어준다. 가시가 들어갈 부분에 드릴링을 해주고 【그림 33】 처럼 리벳과 함께 가시를 꽂아준 후 뒷면에 에폭시로 고정해 완성한다.



【그림 31】

다이포밍 기법으로 만든 선인장



【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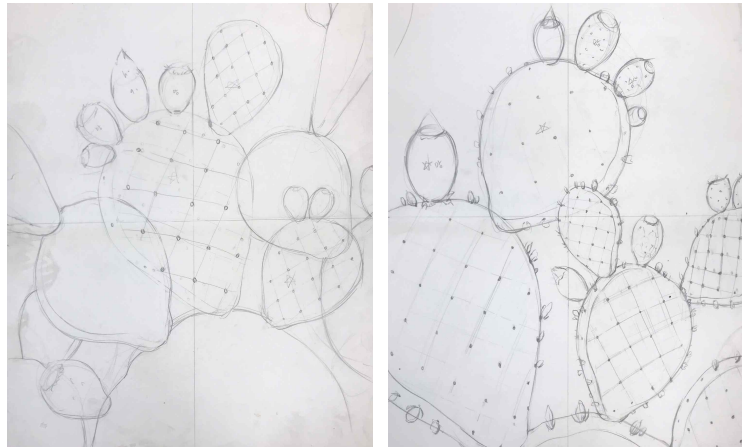
선인장 가지



【그림 33】 선인장 가시 부착

〈Colorful cactus 1, 2〉 【작품 8, 9】의 작업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는 스케치한 후에 캔버스 위에 조형물이 들어가는 부분만 제외하고 아크릴로 채색을 해주었다. 【그림 34, 35】



【그림 34】 선인장 스케치



【그림 35】 선인장 스케치 채색

두 번째로는 선인장 모양의 조형물 제작에 들어간다. 입체 선인장을 제작하려면 좌우 반쪽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했기 때문에 금속 성형 기법 중 하나인 다이포밍을 사용하였다.



【그림 36】 다이포밍 기법을 이용한 선인장 잎 만들기

세 번째로는 틀에 맞춰 나온 반쪽짜리 조형물을 용접하여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림 36】의 결과물에 선인장의 가시가 튀어나오는 부분을 미리 드릴링 하여 뚫어주고 2mm 정도의 여유분을 남기고 선인장의 모양에 맞춰 톱질하여 잘라낸 다음 【그림 37】 처럼 용접하여 결합한다.



【그림 37】 반쪽짜리 조형물을 용접하여 결합

완성된 선인장 조형물들을 【그림 38】 과 같이 결합시키고 조형물 뒷면에는 【그림 39】 처럼 볼트를 뿜하여 붙여준다.



【그림 38】

각각의 조형물들을 하나의 형태로 결합



【그림 39】

조형물의 뒷면에 볼트를 용접하여 지지대 만들기

네 번째로 선인장 조형물 위에 열 착색을 이용하여 색을 입혀주었으며 질산을 이용하여 금속 표면에 선인장의 가시를 그려주고 【그림 41】 처럼 입체적인 가시도 함께 부착하여 더욱 사실적이게 표현하였다. 【그림 40】 과 같이 열 착색을 할 때 온도를 다르게 하여 색상의 변화를 주었으며 선인장의 몸체 부분은 아크릴화에 그렸던 보랏빛의 선인장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착색하였다.



【그림 40】

완성된 선인장 형태의 조형물에 열 착색하기



【그림 41】

선인장 조형물과 선인장 아크릴화 위에 가시 부착

마지막으로 완성된 조형물을 평면적인 아크릴화에 고정해 마치 그림에서 실제 사물이 나오는 듯한 착시를 주었다. 입체조형물과 평면적인 그림 사이에 공간을 띄워 부착시킴으로써 조형물의 입체성을 더 부각함과 동시에 뒤에 있는 그림과 조형물 사이에 공간감을 주었다.

② 사막 시리즈

사막 시리즈는 블랙-C, 황화칼륨, 에폭시, 금속망, 아크릴, LED 조명 등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사막의 고요하고 황량한 이미지를 표현해 보았다.

〈홀로〉 【작품 10】의 작업과정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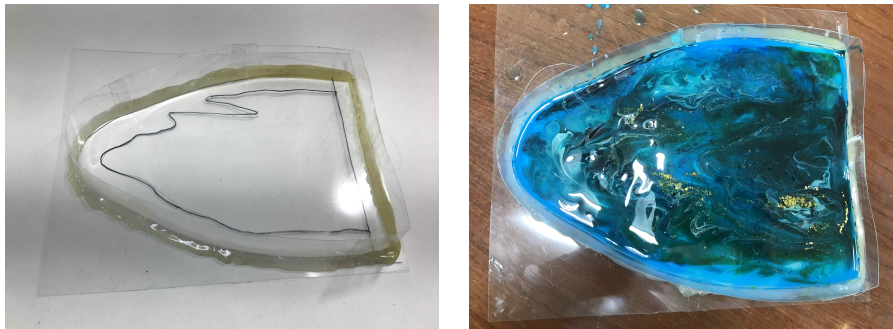
블랙-C와 황화칼륨을 이용하여 음영만으로 사막을 그려내었다. 착색용액의 농도조절로 색의 명도를 조절하여 사막의 모래 물결을 표현하였고 모래 언덕으로 원근감을 표현해 화면의 깊이를 더하였다. 낙타는 왁스 카빙으로 작품에 들어갈 낙타 모형을 만들어 주물을 뜬 후에 【그림 42】와 같이 볼트를 부착하여 작품 위에 고정했다. 그리고 낙타를 판에 고정하기 전에 사용한 동판의 색에 맞춰 적동착색을 하여 이질감을 줄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왁스(wax) 성분이 첨가된 약품 중 하나인 구두약을 사용해 표면코팅을 하여 마무리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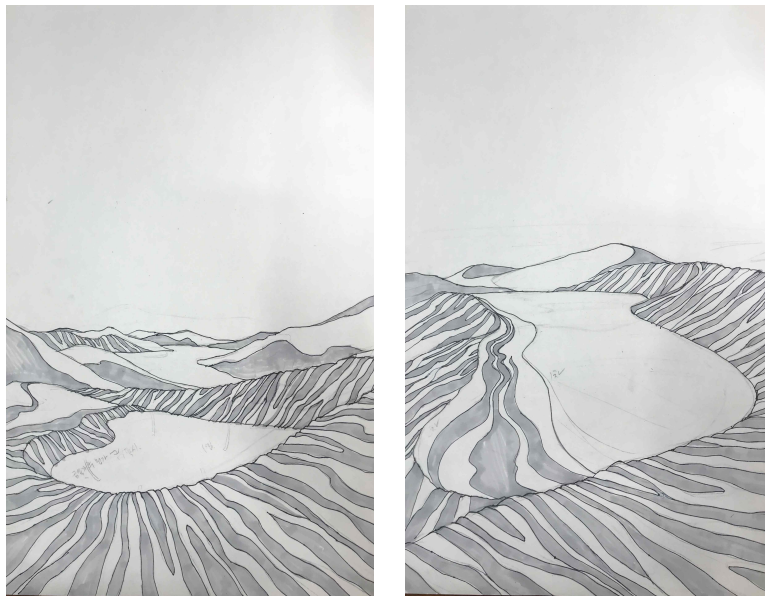
【그림 42】 낙타 모형

〈잠시 멈춰 서서(day) 1, 2〉 【작품 13, 14】의 작업과정은 아래와 같다. 먼저 【그림 44】의 스케치를 금속판 위에 그대로 옮겨 그려준다. 그다음에는 【그림 45】와 같이 모래언덕에 나타나는 결을 산으로 부식시켜 음각으로 표현해 준다. 음영 부분은 황화칼륨과 블랙-C를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그림 46】 처럼 배경에 젯소를 발라준 후 그 위에 아크릴물감을 이용하여 사막의 하늘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림 43】 과 같이 에폭시에 염료를 섞어 오아시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오아시스는 【그림 47】 처럼 뒤판에 고정하고 작품 안쪽에는 【그림 48】 과 같이 조명을 설치하여 오아시스 주변으로 불빛이 새 나오도록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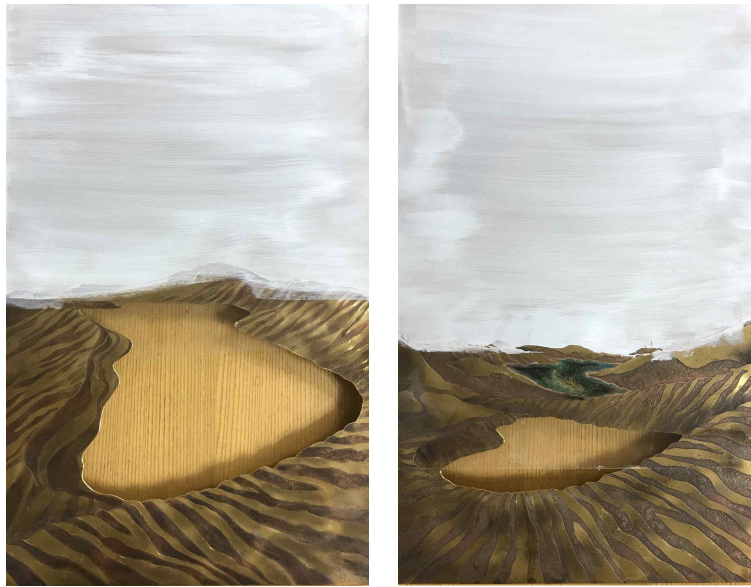
【그림 43】 에폭시로 오아시스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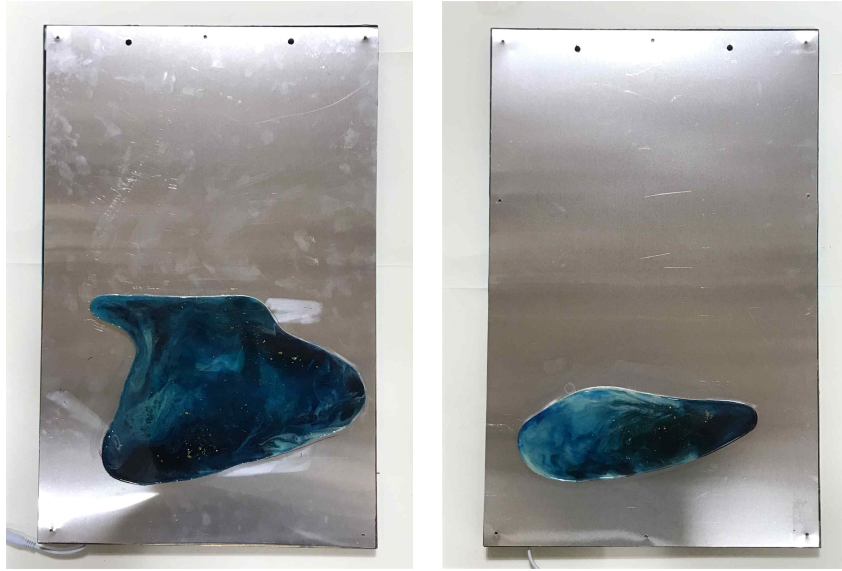
【그림 44】 사막이미지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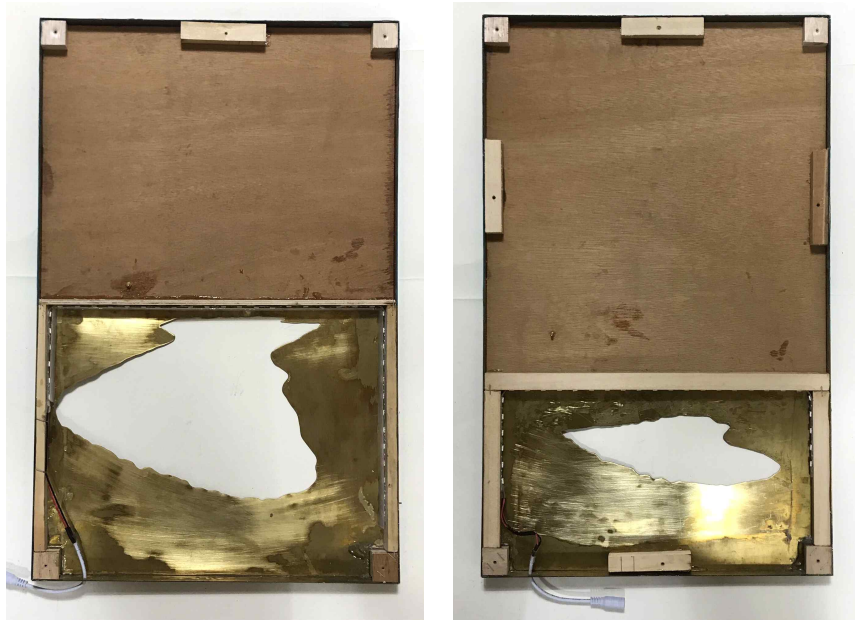
【그림 45】 사막의 결 모양대로 부식시킨 후 착색



【그림 46】 오아시스 부분 컷팅과 배경에 젯소 바르기



【그림 47】 오아시스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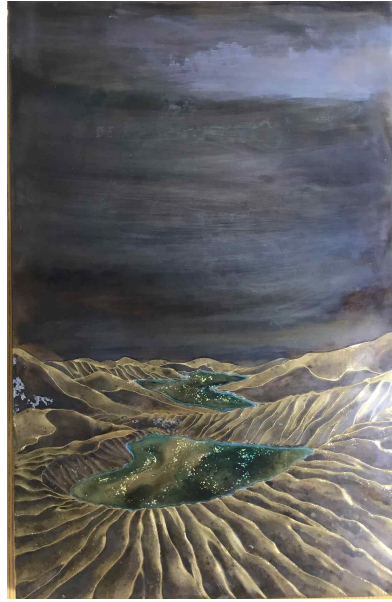


【그림 48】 뒤판에 led 설치

〈잠시 멈춰 서서(night) 1, 2〉 【작품 11, 12】의 작업과정은 아래와 같다. 사막의 이미지를 【그림 49】와 같이 블랙-C와 황화칼륨을 사용하여 그려내었고 황동 솔과 광바를 이용하여 사막에서 물결처럼 흘러가는 모래언덕을 묘사하였다. 착색용액으로 넓은 면적을 칠해줄 때 붓 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스프레이로 뿌려주었다. 착색이 완료된 후 【그림 50】처럼 오아시스 주변에 글루 건으로 틀을 만들어주고 에폭시에 염료를 섞어 금속 표면 위에 얇게 도포해 주었다. 사막의 하늘은 착색된 금속 표면 위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어 반짝이는 별을 표현하였으며 작품 안쪽에는 【그림 51】과 같이 LED 바를 설치하여 드릴링 한 부분에 빛이 새어 나오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체 구두약으로 표면코팅을 한 뒤 낙타모형을 작품에 부착하였고 【그림 52】처럼 뒤판을 만들어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49】 블랙-C와 황화칼륨으로 착색 및 묘사



【그림 50】 글루건으로 틀 만들어 에폭시 붓기



【그림 51】 뒤판에 led 부착



【그림 52】 알루미늄 뒤판

〈Colorful desert 1, 2〉 【작품 13, 14】의 작업과정은 아래와 같다.

위 사막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다채로운 색상의 사막을 표현하고자 【그림 53】과 같이 아크릴 염료를 사용하여 그려주었다. 앞의 작품들이 금속착색 기법에 중점을 둔 작업이었다면 이 작품은 금속재료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 만들었다. 손으로 자유자재로 성형이 쉬운 금속망을 활용하여 사막의 모래 물결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54】와 같이 금속망으로 결을 만들어 캔버스에 고정하고 【그림 55】처럼 사막의 형태에 따라 망을 잘라주고 중간마다 여유 선을 남겨 주었다. 남겨둔 선을 뒷면에 묶어 고정해주고 들뜸을 방지하기 위해 동선으로 끝 부분을 바느질해 주었다. 【그림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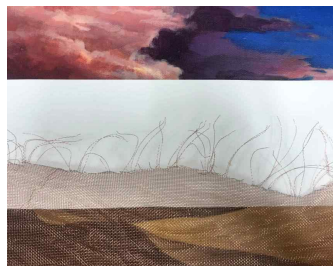


【그림 53】 아크릴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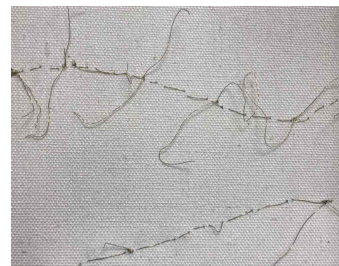
【그림 54】

금속망으로 모래 결 표현



【그림 55】

금속망 자르기



【그림 56】

동선으로 바느질

4) 작품분석

① 선인장 시리즈

선인장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춰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진화되어 왔다. 그래서 같은 다육성식물의 범주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1) 아크릴 착색표현

〈Mini cactus series〉 【작품 1, 2】는 아크릴 염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선인장의 모습을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선인장의 모습을 표현한 이유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금속 착색기법으로 여러 색상을 연구해 보았지만, 회화에서 쓰이는 염료의 색상들을 모두 다 표현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금속 착색기법과 더불어 아크릴 염료도 같이 사용하여 금속이 가지고 있는 색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작품 1】

〈Mini cactus series〉 , brass, acrylics, 160*160*20(m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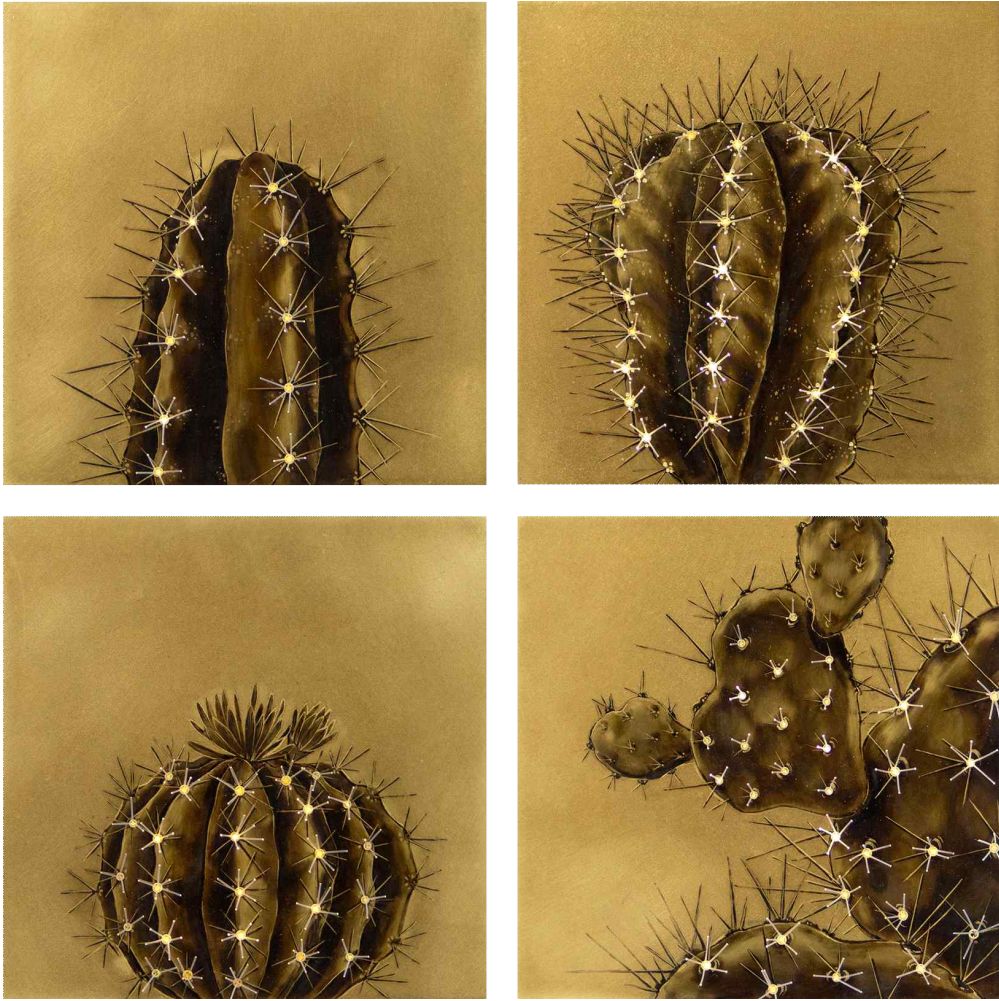
【작품 2】

〈Mini cactus series〉 , Copper, acrylics, 160*160*20(mm), 2019

(2) 블랙-C, 황화칼륨 착색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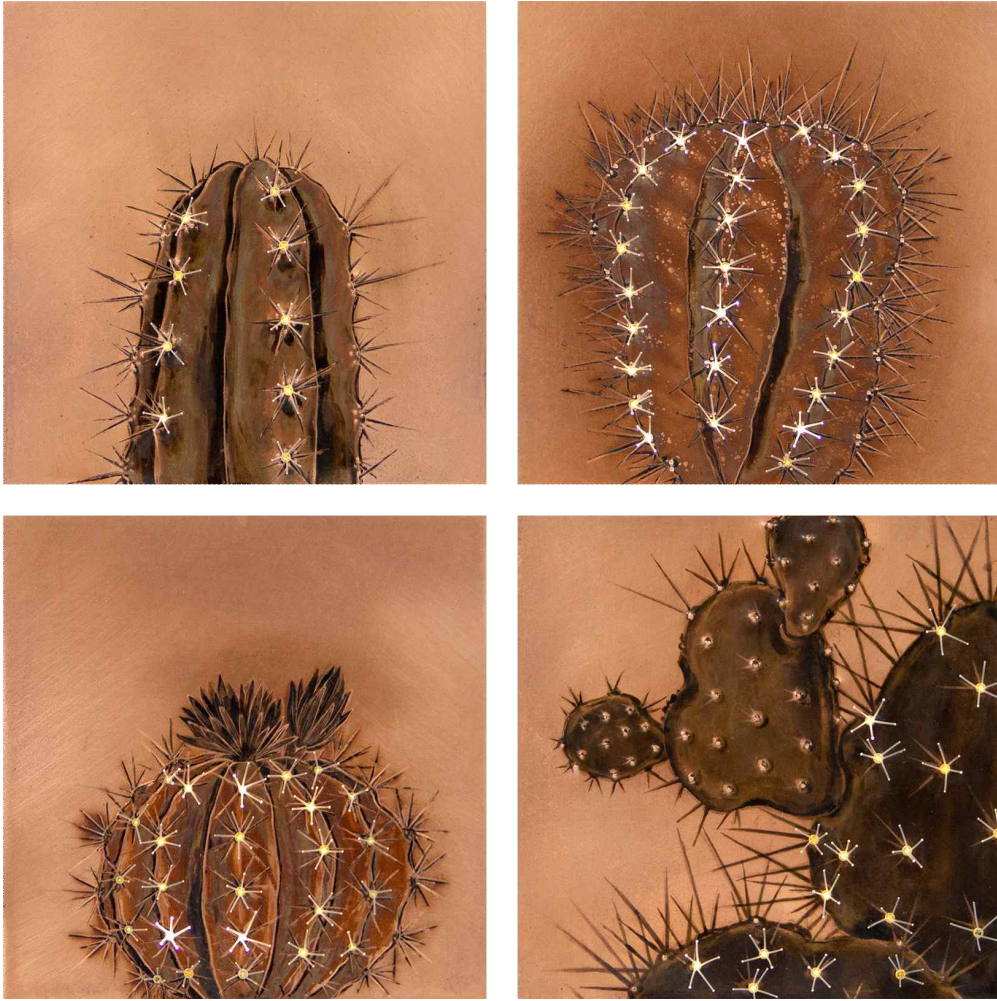
〈Mini cactus series(light)〉 【작품 3, 4】는 블랙-C와 황화칼륨으로 선인장을 그려내고 빛을 확장하는 광섬유를 이용하여 가시를 표현하였다. 아크릴염료처럼 색이 다양하지는 않아 색 보다는 형태적인 모습에 집중하여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작품에 그려낸 선인장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어두워 보이고 무채색에 가깝게 보이지만 광섬유로 만들어진 가시를 통해 안에서부터 은은하게 뻗어 나오는 빛줄기들은 어둡고 차가운 겉모습과는 다르게 따뜻하게 빛나는 내면을 보여준다.



【작품 3】

〈Mini cactus series (light)〉 , brass, 블랙-C, 황화칼륨, 광섬유,
160*160*20(mm), 2019



【작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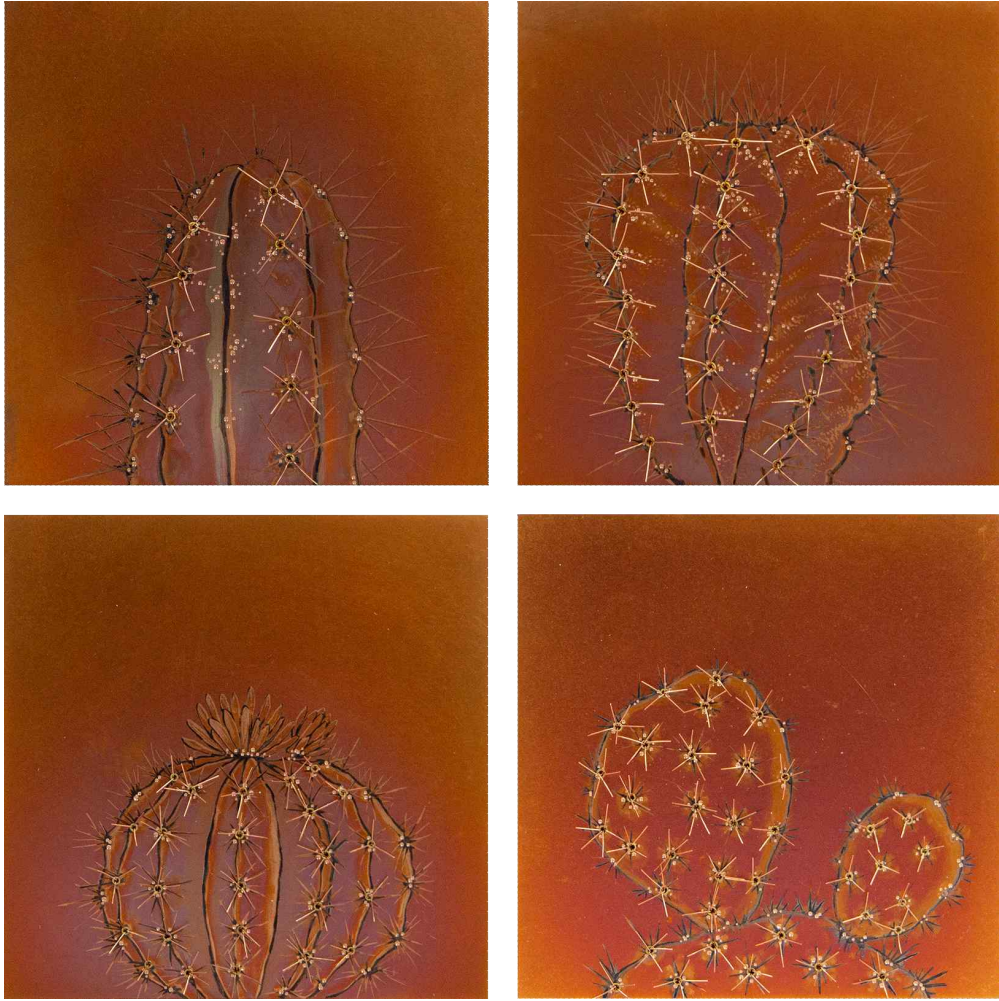
〈Mini cactus series (light)〉, Copper, 블랙-C, 황화칼륨, 광섬유,
160*160*20(mm), 2019

(3) 열 착색표현

〈Mini cactus series〉 【작품 5】는 열 착색기법을 중점으로 한 작품이다. 본 연구자는 온도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열 착색의 모습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온도에 비유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사람들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달라진다. 기쁨, 슬픔, 외로움, 즐거움, 등의 감정들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체온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종종 온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중에는 ‘감정이 식었다.’ 혹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등의 표현들이 있다. 이렇듯 감정의 온도는 사람들이 내비치는 순간의 표정들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며 사람들은 체온의 변화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인지하기도 한다.

본 연구자는 이렇게 감정의 온도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열 착색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열 착색기법은 온도에 따라 다양한 색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를 시각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작품 5】와 같이 금속 표면에 열 착색을 하여 사람들의 내면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질산과 블랙-C, 황화칼륨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선인장들 그려내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 5】

〈Mini cactus series〉, Copper, 블랙-C, 황화칼륨, 160*160*20(mm), 2019

(4) 반 입체형태의 표현

〈Cactus flowers〉 【작품 6, 7】은 아크릴화 위에 선인장과 선인장 꽃을 반 입체조형물로 만들어 표현하였다.

꽃은 식물의 생명력이 가장 응축되어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꽃이 피고 만개하고 저물어가는 과정은 탄생과 소멸이 존재하는 인간의 삶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꽃에 비유하기도 한다. 【작품 6, 7】은 선인장의 꽃이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꽃이 만개하였다 함은 식물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인간 삶의 모습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상징하기도 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꽃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꽃을 입체조형물로 제작하였으며 선인장의 가시와 잎 일부분을 입체로 만들어 평면조형과 입체조형물 사이의 이질감을 줄여 화면 속에 잘 어우러지게 하였다. 그리고 【작품 6】에서는 꽃 안에 낙타를 넣어 가장 아름다운 삶의 순간을 거쳐 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6, 7】

〈Cactus flowers 1〉, brass, 블랙C, 450*650*20(mm), 2019

〈Cactus flowers 2〉, brass, 블랙C, 450*650*20(mm), 2019

〈Colorful cactus〉 【작품 8, 9】는 선인장의 모습을 캔버스 위에 아크릴로 그려내고 그 위에 반 입체조형물로 만들어진 선인장을 결합해서 만든 작품이다. 다양한 크기의 선인장들을 화면 위에 나타내고 입체조형물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평면구성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선인장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나타내었다. 커켜이 겹쳐져 있는 선인장들의 모습은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작품 속에 그려져 있는 선인장과 금속조형물의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표면에 열 착색으로 색의 통일감을 주었으며 작품에서 나타나는 입체성과 평면성의 조화는 본 연구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작품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



【작품 8, 9】

〈Colorful cactus 1〉 , Copper, 600*700*20(mm), 2019

〈Colorful cactus 2〉 , Copper, 600*700*20(mm), 2019

② 사막 시리즈

〈홀로〉 【작품 10】 은 사막 한가운데 쓸쓸히 서 있는 낙타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황량한 사막 속에 홀로 남겨져 있는 낙타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고독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10】

〈홀로〉, copper, brass, 블랙C, 황화칼륨, 360*560*20(mm),
2019

〈잠시 멈춰 서서 night, day〉 작품 11, 12, 13, 14】는 사막의 황량하고 고독한 모습을 낮과 밤의 이미지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작품 11, 12】는 블랙 c와 황화칼륨을 이용한 표면 착색만으로 어두운 사막의 밤을 표현하였고 【작품 13, 14】는 앞의 작품과는 다르게 금속을 부식시켜 사막의 모래 언덕을 표현하였으며 아크릴물감을 함께 사용하여 사막의 낮을 표현해보았다.

작품 속의 홀로 서 있는 낙타로 현대인들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외로움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하고자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넣었다. 여기서 오아시스는 쉼터의 공간이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공간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이 작품들을 통해 외로움과 고독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자 하였다.



【작품 11, 12】

〈잠시 멈춰 서서(night) 1〉, brass, epoxy, 블랙C, 황화갈륨, 360*560*20(mm), 2019

〈잠시 멈춰 서서(night) 2〉, brass, epoxy, 블랙C, 황화갈륨, 360*560*20(mm), 2019



【작품 13, 14】

〈잠시 멈춰 서서(day) 1〉, brass. epoxy, acrylics, 블랙C, 황화칼륨,
360*560*.20(mm), 2019

〈잠시 멈춰 서서(day) 2〉, brass. epoxy, acrylics, 블랙C, 황화칼륨,
360*560*.20(mm), 2019

본 연구자가 앞서 보여주었던 사막의 모습은 황량하고 삭막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었다면 <Colorful desert 1, 2> 【작품 15, 16】은 위와 같이 쓸쓸하고 어두운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다채롭고 밝은 이미지의 사막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15, 16】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단단한 금속판 대신 비교적 성형이 쉬운 금속망을 활용하여 부드러운 모래언덕의 물결을 표현하였으며 밀그림에 따라 결의 방향과 크기를 달리하여 원근감을 나타내주었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다채롭고 신비한 사막의 이미지를 나타내하고자 하였다.



【작품 15, 16】

<Colorful desert 1> , copper, acrylics, 블랙C, 황화칼륨, 460*650*20(mm), 2019

<Colorful desert 2> , copper, acrylics, 블랙C, 황화칼륨, 460*650*20(mm), 2019

Ⅲ. 결 론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로 얽혀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개인화된 사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다양성과 개성의 자유를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의 단절과 더불어 사람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은 현대인들에게 외로움과 고독감을 주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은 점점 더 메마르고 각박하게 변화되었다.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현대사회의 모습을 사막의 황량하고 고독한 이미지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도시화된 삶의 방식에 맞춰 개인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 맞게 진화된 다양한 선인장의 모습과 낙타의 모습으로 표현해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사막의 모습들을 금속공예의 회화적 표현방식에 중점을 두어 작품에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다양한 금속착색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선과 색상들을 연구하여 금속판 위에 사막의 이미지를 회화적 방식으로 그려내었다. 더불어 입체조형물을 평면작품 위에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금속 조형기법과 회화적 표현기법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각각의 조형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융합된 작업방식을 통해 장르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예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은미, 『연결된 개인의 탄생.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8.
- 클렌 아담슨, 『공예로 생각하기』, 미진사, 2016
- 댄 토레,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식물 선인장』, 니케북스, 2019
- 데이비드A.라우어/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예경, 2002
- 전용일,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2006.
- 전국지리교사연합회,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휴머니스트, 2011
- 최범, 『공예를 생각한다』, 안그라픽스, 2017
-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학위 논문>

- 김헌철, 「선인장과 인간 내면 표출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백한승, 「21세기 현대미술에서 공예의 기능성과 정체성 연구 : 하워드 리사티(Howard Risatti)의 '비평적'공예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송은숙, 「소외와 고독의 시선으로 본 도시공간의 회화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 이인숙, 「도자공예의 영역 확장 연구 : 쓰임과 장인의식의 현대적 해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2015
- 전용환, 「공동체의식 활성화를 위한 주거단지 계획안 (전통적 주거공동체의

공간구조원리의 도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최경미, 「자연 관조를 통한 금속조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황희지, 현대인의 고독과 빛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Modern Solitude and Light,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학술지>

이훈복, 「사막에서 사는 동·식물」,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6권, 2018, pp.67-68.

<웹사이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23124&cid=47316&categoryId=4731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3547&cid=40942&categoryId=33061>

https://scienceall.com/%ec%82%ac%eb%a7%89-%ea%b8%b0%ed%9b%84desert-climate/?term_slug=

<http://www.sharonweiser.com/ContemporaryCactus>

<https://blogview.hyundaicardcapital.com/340>

<https://brunch.co.kr/@ideabulb/362>

<https://www.designboom.com/art/nos-moving-dunes-mirage-montreal-11-03-2020/>

http://www.kacn.org/board/view?b_name=bo_story&bo_id=114&per_page=

ABSTRACT

A study on the painting expression of metal crafts based on the image of desert

Kim Hee Young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we as individuals live amid the relationships that we form with many other people. However, we still feel the loneliness of life and its emptiness, which drives us to trap ourselves, alone, in our world and then again to seek shallow relationships that lack authenticity. Hopelessness and despair dishearten one and make one defensive, and such aspect has extended to changing the modern society into a lonely society. A society changed as such has led to the loss of communication, causing the isolation of human relationships and creating a wall of defense so high and multiple that it became unable to seek each other's true inner thoughts: just like the needles on a cactus hiding and protecting its body.

The artwork of this thesis compares such an impression of modern society to the image of a desolate and lonely desert, juxtaposing the various living organisms that survive enduring the conditions of the desert

to us humans living the present. 'Us' meaning cactuses with multiple colors and forms that have evolved in their environment and camels with a distinctive appearance.

The researcher intended to visually represent the desert creatures that have evolved according to their environment using pictorial expression. Semi three-dimensional sculptural works were also composed into the final artwork to reduce the disjuncture between the three-dimensional sculpture and the two-dimensional drawings, which resulted from adding pictorial features into the creation process. With a heat-induced method of coloring applied onto the metal surface instead of using pigments, the characteristics of metal were emphasized, showing the researcher's means to investigate research methods that can highlight individual materials but retain the color scheme and overall atmosphere of the artwork.

The researcher attempts to move away from the general tendencies of crafts that primarily concentrate on the form and overcome the limitation of a flat-surfaced artwork by focusing on planar characteristics and pictorial expression methods. For example, the researcher tinted the metal surface to give shade, put color to display depth and dimension, and added a semi three-dimensional sculpture into the artwork. The researcher found that the working process that crossed between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planes was the most appropriate to represent the multitude of facets that people living in modern society. This cross-over working process was part of the researcher's intention to display social alienation and the modern people's loneliness and isolation caused by different relationships in pictorial form.

The researcher's artwork applied pictorial expression on a flat plane and the three-dimensional sculpting method to supplement each features' flaws and utilize their fundamental characteristics to create a unique harmony between the two. Such a fusional way of working can suggest a clue to solving isolated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ccording to society's changed state in a positive manner. While being aware of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from a community-based to an individual-based, the researcher suggests resolving the loneliness of modern society by forming relationships based on respect for individuality and allowing one to freely express and share thoughts as much as possible one's boundaries allow.

The researcher intended to seek a new characteristic in the artwork's form as an objet by using the change in craft, which focused on the formativeness as objects, and utilizing the unique features that each genre carries by breaking boundaries of the artwork's genre. Furthermore, the researcher aimed to give the artwork a new value as a craft by creating it to fit the modern lifestyle as a wall object sculpture and provide visual satisfaction rather than practical use.